

사랑 우리날때 세상 아름답다

박태원 교수가 쓰는

불교로 보는 인생

사랑, 그 아름다움과 추함

‘아들아, 이제 전쟁 슬래잡기 게임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번엔 만 돌키지 않고 숨어 있으면 일등상은 우리 것이다. 탱크가 상륙이란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오지 말고 꼭꼭 숨어 있거라!’ 숨어 있는 아들에게 장난처럼 웃고 손 흔들며 총살당하려고 골목으로 끌려가는 아버지. 어린 아들의 유희적 중심이 인종 차별과 학살의 아반트 현실과 고통에 의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광대 짓을 연출해 가는 아버지의 슬픈 희극 연기. 끌어안는 총성,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눈물겨운 장면이다. 과연 인생은 아름다운가? 상처 깊은 한숨과 나무의 현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처구니없는 아반트 인간사. 그러나 사랑이 있기에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라.

나이 먹으며 그 어느 때부터가 부모에게 일부러 거짓말을 하게 된다. 부모에게 걱정거리 안겨 드리고 싶지 않아 힘든 일 입밖에 내지 않고 혼자 감당하거나, 짐짓 사실과 다르게 고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리고 그럴 때는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 대신 묘한 운기의 정감이 번져난다. 부모에게 향하는 자식의 사랑이다.

타인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잘 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희구의 정감, 타산 없이 우러나 펼쳐지는 그 따뜻한 기운은 분명 생명 건강의 원천이라 하겠다. 못생겼던 이런 기운으로 교감하며 관계 맺는다면 가히 아름다운 세상이라 하겠다. 생명은 본능적으로 이런 사랑의 면모를 지닌 듯하다. 인간이건 짐승이건 간에, 부모 자식과 같은 가까운 혈연 관계나 음양의 이성(異性) 관계에서는 그 사랑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펼쳐

진다. 별다른 노력이나 훈련 없이도 우러나는 본능적 충동이다. 다만 혼자 생존할 수 있게 되거나 생식기가 끝나면 서슴지 않고 결별하는 짐승의 경우와는 달리, 인간은 그 독특한 문화적 능력으로 인해 전 생애에 걸쳐 그 사랑을 유지, 강화, 성숙시켜 나간다.

그런데 인간의 이 본능적 사랑은 너무나 쉽게 이리저리 울타리 안에 갇혀 자칫 폐쇄적이며 협소해

도의 남북 전쟁을 주도한 것은 유별난 이념 사랑이 아니던가?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피 뿌리고 있는 종교 분쟁은 자기 종교에 갇혀 버린 사람들의 충돌이 아니던가?

인간은 복잡한 면모를 동시에 지닌 존재다. 아름다운 사랑의 면모를 지니는가 하면, 타자 부정을 칼날 같은 야만성의 뿌리 역시 깊고도 튼튼하다. 이 야만의 얼굴은 사랑의 면모를 쉽게 왜곡시키곤 한다.

혈연·지연·이념에 갇힌 애정 위험 자비는 울타리 너머 보편적 사랑

지곤 한다. 내 자식, 내 부모 사랑이 남의 부모 자식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는 않는다. 핏줄이라는 울타리, 지역, 종교, 민족, 국가, 인종, 이념의 울타리에 사랑의 기운은 쉽게 갇혀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렇게 갇혀버린 사랑은 비록 강렬하나 답답하고 위험하다. 생각해 보라. 인간 역사의 피 흘리는 고통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유대인 대학살의 이면에는 게르만 민족의 독선적 자기 사랑이 도사리고 있지 않던가? 한반

다, 때로는 가족적 혈연이나 지연(地緣)을 울타리로, 때로는 민족, 인종, 이념, 종교의 벽으로 막아 왜곡하곤 한다. 그렇게 왜곡된 사랑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공격과 증오의 동력으로 악용된다.

사랑이라는 힘의 이 양면성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 해법으로 보편적 사랑을 꿈꾼다. 혈연, 지연, 이념의 벽을 허물고 본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만개할 수 있는 ‘울타리 너머 사랑’을 추구한다. 그러자면 인간 특유의 문화적 능력을 고도화시

켜야 할 터. 사랑을 왜곡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고도의 지성과 윤리 능력을 개발하고 성숙시켜 실천해야 한다. 철학, 종교, 문학, 예술 등 인간의 모든 문화 영역에서 우리는 인간의 그러한 노력들을 대면하게 된다. 울타리 너머 사랑(普遍愛)의 아름다운 희원(希願)을 땅 위에 실현해 보려는 그 빛나는 노력들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부처님의 자비는 ‘울타리 너머 사랑’의 절정이다. 강렬하면서도 확 트인 부처님 사랑이라면 세상은 분명 아름다우리라.

울림법은 아담법석(野壇法席; 야외에 치러놓은 진리 추구의 자리)이어야 한다. 금메달에는 웃고 은메달, 동메달에는 운다면, 올림픽은 국가 울타리에 갇힌 사랑의 각축장이 되고 만다. 올림픽은 함께 어울려 뛰고 땀 흘리며 ‘울타리에 갇힌 사랑’을 해방시키는 아담법석이어야 한다. 서로 최선을 다해 밀고 밀리다가 물씬 풍겨오는 땀 냄새에서 진한 인간애와 우정을 받고 어깨동무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승자의 오만, 패자의 한숨이 한 바탕 웃음으로 녹아나야 한다. 그리하여 사랑을 추하게 왜곡시키던 그 허망한 울타리들이 와르르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 때, 아담법석 가득히 울타리 너머 아름다운 사랑의 야생화가 눈부시게 피어나리라.

울산대 철학과 (twpark@uou.ulsan.ac.kr)

“연꽃의 가르침 따라 맑고 향기롭게 삽시다”

더운 여름도 어느 듯 지나가고 이제는 시원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밤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울리며, 나뭇잎들도 가을 맛이 준비하는 듯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동안에 대단히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개산초기부터 발원한 만일염불결사(萬日念佛結社) 입재식도 6월 8일에는 가졌으며, 오늘은 제1회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곳 청계산 기슭에 정토도량을 개산하면서 <아미타경>에 나오는 정토의 세계처럼 도량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철보로 된 연못이 있고, 철보로 된 나무가 일곱 줄로 늘어 서 있으며, 철보 중첩에는 아미타불을 비롯한 수많은 부처님 이 계시는 세계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연(無言)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뿌리는 오염된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중요로운 연근을 제공하므로 항상 남에게 베푸는 보시(布施)를 배웁니다. 잎에 내린 물방울은 모두 다 굴러 내리어 물되지 않으므로 청정한 지계(持戒)를 배웁니다. 외줄기로 솟아난 가지는 오직 하나만이 존재하므로 고독한 인연(忍辱)을 배웁니다. 줄기의 끝에 오직 한 잎만이 피고 있으므로 외길로 오로지 하는 정진(精進)을 배웁니다. 높이 솟아나는 줄기는 속이 텅 비어있으므로 선정(禪定)을 배웁니다. 아무런 큰 일일지라도 처음부터 피지 않고 송곳처럼 말아서 뽕죽하게 돌아나므로 남과 다투지 않는 지혜(智慧)를 배웁니다. 외줄기에 아름다운 꽃만을 피우므로 고결함을 배웁니다. 꽃이 피면서 열매도 함께 맺으므로 동사섭을 배웁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언젠가 머리를 숙이므로 겸손함을 배웁니다. 향기는 은은하므로 은둔을 배웁니다. 한가지 꽃이지만 피는 과정에 따라서 피

법회중계

만일염불 100일 회향

(2000년 9월 13일)



보광 스님 (정토사 주지)

뿌리·잎·줄기·꽃·열매서 육바라밀과 겸손 등 부처님 세계 엿볼수 있어

한 연못에는 물위에 동심동심 떠 있는 잎 위에 개구리도 앉고 울렁이도 앉으며 잠자리도 날아다닙니다. 그 밑으로는 비단잉어와 붓어와 자라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월이 되면 새로운 일이 돌아나서 2미터가 넘는 키로 자라며, 우선 만만 큰 잎으로 연못이 가득합니다. 7월에 접어들면서 연꽃이 피기 시작하여 8월말까지는 여기 저기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고 지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보고 있으면 저는 무한한 행복감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잎이 나면서부터 온 도량에는 상큼한 내용으로 가득하게 되며, 아침공양 후에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연지(蓮池)를 감상하게 됩니다. 푸른 청계산과 정열한 극락도와 붉은 백일홍과 아름다운 연꽃의 조화는 한 폭의 극락도(極樂圖)와도 같습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명문 웨베첼大 티베트불교 연구

세계의 불교학 <27> 멕시코 ②

북미와 남미를 잇는 관문, 리오그란데 지역에서 불교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곳은 멕시코의 외곽 도시 크레스톤(Crestone)이다. 이곳에 불교가 처음 알려진 것은 1980년대 초, 티베트 불교 계류에서 미국인 법사를 크레스톤의 불교 담당으로 임명, 불교 정착을 시도할 때부터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처음에는 지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후 1988년부터 미국과 티베트 등의 불교 단체와 교류가 시작되면서, 크레스톤 불교의 서막이 올랐다. 이 서막은 타시 고망 탑(Tashi Gomang Stupa)을 세우는 데서 비롯됐다. 이 탑은 크레스톤 불교계의 기동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크레스톤 불교회의 태동을 뜻한다. 특히 불교회가 지역민들로부터 합법적 종교단체로 인정되었던 1989년은 크레스톤 불교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크레스톤에 타시 고망 탑을 세운 시기도 이쯤이다. 까르마 도르지 스님이 미국과 멕시코 불자들의 후원으로 세운 이 탑은 높이 8미터 가량의 석탑이다. 하얀색 대리석과 황금색 칠주(탑의 맨 윗부분)로 되어 있는 이 탑은, 멕시코에 불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뜻하는 것

이고 때론 장좌를 개설하는 배움의 장이다. 그래서 이 법당을 찾은 멕시코인 가운데에는 동양의 학과 무술 심지어는 풍수에 관심이 있는 불자들이 많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크레스톤에서 티베트불교도교우회(TBF)가 처음 결성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불교는 크레스톤뿐만 아니라

크레스톤市 10개탑 ‘불교정착’ 상징 스님 초청강연·신행단체 설립 활발

이기도 하다. 불교회의 활동과 그 영향력은 법당 운영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율 법당’이라고 불리는 이 법당은 주중에도 늘 개방되어 있는데, 평균 70여 명의 신자들이 스스로 신행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곳은 불교 교유의 수행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율 법당은 서로의 관심을 나누는 교류의 장

라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교우회는 시내 중심에 법당을 마련해 놓고 주말에만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한다. 이 단체는 서양에 전해진 티베트 불교를 서양인에 맞게 재해석해 불교의 지면을 확대시키고 있어, 명실공히 크레스톤에 군현된 지형적 불교를 멕시코 전역에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쪽에서 전해진



◊크레스톤에 세워진 ‘타시 고망 탑’ 모습.

티베트 불교가 서양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1993년에는 달라이 라마가 이곳을 비공식 방문했는데, 이 일은 멕시코인들의 마음에 불심의 뉘앙스를 박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은, 이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높아졌고, 티베트불교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티베트 불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에 대한 관심과 불자증가는 타시 고망 탑 외에도 나그와 예체 탑, 계규 데기 탑 등 10여 개의 탑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후 멕시코의 불교는 명문 웨베첼 대학 동양학과에서 티베트의 인권문제를 비롯해 티베트의 교육·문화에 대한 연구를 본격

적으로 시작하고, 티베트 문화를 연구 소개하는 비영리 학술 단체 ‘멕시코-티베트 문화회’가 설립되는 등 학계와 민간연구단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1997년에 창립된 문화회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국제 교류 참구인 ‘티베트 하우스’의 타랄 툽구(Tarab Tulku) 스님을 초청해 티베트와 멕시코 불교에 관한 강연 등을 주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일본 임제선 계통의 참선도임도 있다. 불교회나 티베트불교도교우회에 비해 늦게 출발했지만, 체계적인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갈월시 영탑(靈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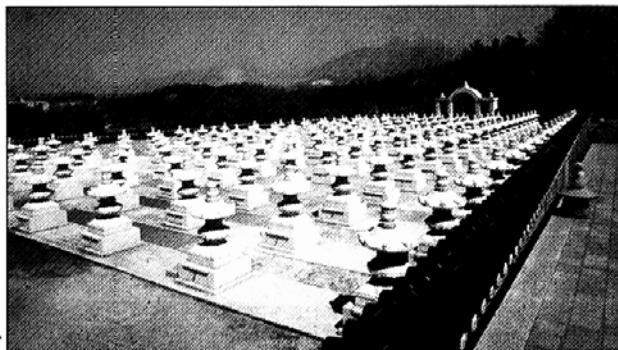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으로 평안히 영성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시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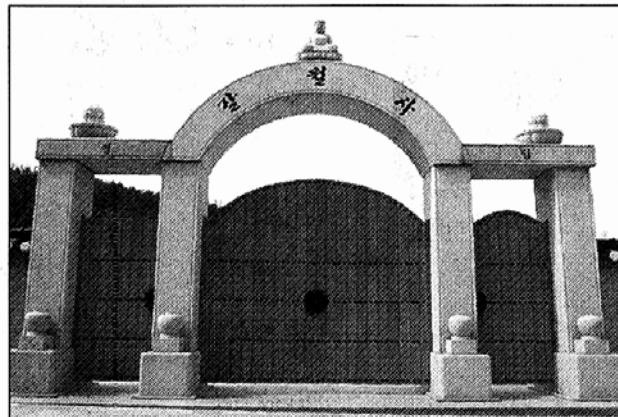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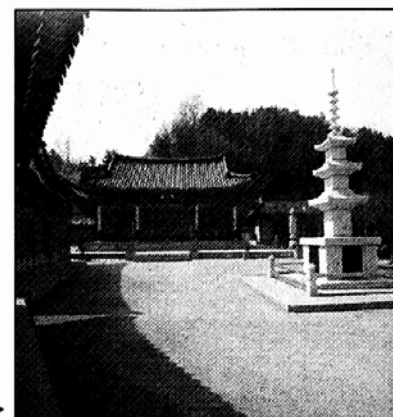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색이 들어가 결국 지수화종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달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영탑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시종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문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정문

· 모시고 싶은곳, 자주지주 찾아보고 싶은곳 · 영원한 심터입니다. · 기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영속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